



4면

전주시-문화재단
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 '맞손'

전주매일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음 11월 4일) 제268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17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북 해상풍력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송하진 도지사(왼쪽)와 정연인 두산중공업대표이사, 효성중공업, 유니스 등 터빈제작 3개사와 CS윈드, 삼강M&T 등 터위구조물 2개 사 대표 등이 참석하여 업무협약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 해상풍력 기업유치 업무협약

도 '그린뉴딜'·'해상풍력 밸류체인' 구축 첫 발
두산·효성·유니스·CS윈드 등 5개기업 참여
관련기업 육성·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기대

전북도가 '해상풍력 산업'의 본격 추진과 '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밸류체인'의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도는 17일 해상풍력 관련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터빈 제작업체 등 5개 기업과 '전북 해상풍력 기업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유니스 등 터빈제작 3개 기업과 CS윈드, 삼강M&T 등 터위구조물 2개 기업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전북도와 협약에 참여한 5개 기업은 '전북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국산 풍력발전기의 보급 확대, 연관산업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와 관련 업체 간 협력 범위 및 역할 등을 설정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도는 각 터빈사가 개발 중인 해상풍력 발전기의 성공적인 개발을 전제로 해당 해상풍력 발전기가 본 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상풍력 부품 및 설비 제조기업의 도내 투자유치를 위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협약 참여 기업들은 도내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일정 규모의 물량이 확보되는 경우 생산공장 설치 등 투자를 통해 도내 지역에서 풍력발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

전북도는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2.4GW)와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풍력 발전단지(2GW) 등의 사업이 본격

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터빈 타워, 하부구조물, 블레이드 등 해상풍력 기자재의 물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전북은 서해안의 중심지로서 인천 및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물량을 공급하는 데에도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한 기업유치 조건에도 유리한 점이 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이 도내에 공장 설립 시 전북도는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의 위상을 갖춰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상풍력 관련 기업이 도내 공장 이전 시 관련기업 육성, 핵심인력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도내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 규모 2.4GW에 14조원을 투자해 9만개 일자

리 창출 23조원 경제 유발효과, 30개 해상풍력기업 유치와 함께 탄소발생 저감을 통한 환경보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2GW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35억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 적합입지의 풍향지향측정, 해양환경조사,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2023년 이후 발전단지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이 전북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기업투자를 희망하는 기업과 함께 전북 해상풍력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해 전북이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시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주)태영건설은 17일 전주시청에서 그린뉴딜 및 수소경제도시로의 이행을 위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수소에너지로' 전주시 수소 융복합 사업 추진

한국환경공단·한수원·태영건설과 협약

전주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미래 에너지인 수소 에너지를 생산한다. 전주시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한국수력원자력(주) 대표 정재훈, (주)태영건설(대표이사 이재규)은 17일 전주시청에서 그린뉴딜 및 수소경제도시로의 이행을 위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 사업은 전주시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활용해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목표다.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력원자력은 2800여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40MW(메가와트) 규모의 수소 융복합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수소 융복합 시설 구축은 국내 최초의 시도다.
시는 부지 임대 및 바이오가스 기반 융복합 사업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고 한국환경공단과 태영건설은 각각 바이오가스 생산 기술과 바이오가스 공급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 4개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바이오가스 기반의 수소 융복합 사업 개발 ▲인·허가 협력 ▲안정적 바이오가스 생산기술 협력 ▲사업모델 고도화 ▲정부지원 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한 경제성 확보 ▲바이오가스와 수소를 활용한 추가 사업 발굴 등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국내 최초의 수소 융복합 사업으로 수소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소 연료전지 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 30%, 전력 자립률 40% 달성을 목표로 한 '에너지자립 3040' 정책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민간 투자사업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바이오가스의 판매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친환경 수소 모델리트를 확대하고 수소경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그린에너지를 핵심으로 하는 그린뉴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도시이자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